

# 세계대학평가순위를 통해 본 국내대학의 경쟁력과 과제

## I.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들어 고등교육은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의 가속화 속에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미래 인재 유치 능력을 가능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음. 대학은 더 이상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생태계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식 창출·기술혁신·인재양성의 삼박자를 통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대학평가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s)는 대학 경쟁력의 대표적인 가시적 지표로 각인된 지 오래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QS),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THE),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U.S. NEWS 등 주요 기관들은 교육·연구·국제화·산학협력 등 다면적 지표를 바탕으로 세계 대학들을 평가하며 이 순위는 학생의 대학 결정,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정책, 대학의 국제 협력 및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진학률이 70% 이상으로, 고등교육 접근성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질적인 측면의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특히 세계대학평가의 결과는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국내 대학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대학순위 진입을 주요 목표로 삼고 교육 및 연구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정부의 BK21사업, LINC, 4단계 BK21 플러스, 혁신공유대학사업, RISE(지역 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등은 모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혁신 기반 확대를 지향하였음. 그러나 최근 5년간의 대학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POSTECH·KAIST 등 일부 상위대학 중심의 성과 집중 현상이 뚜렷하며, 중위권·지방대학은 국제화 지표, 연구 인용도, 글로벌 평판 측면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단순히 개별 대학의 문제를 넘어, 국가 고등교육 전체의 경쟁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학 순위가 글로벌 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책적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음. 본 이슈보로서는 세계대학평가를 매개로 한국 대학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I. 세계대학순위 평가기관 특징 및 지표 분석

### 세계대학평가기관별 특징

#### 1. QS World University Rankings(QS)

- QS순위는 영국에 본사를 둔 민간 교육 분석 기관으로써 세계대학평가기관 중 학계평판(브랜드 이미지)과 고용주 평판(취업 가능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어 대학의 명성 및 사회적 기여도를 중요시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 2024년부터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지표를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고용성과(Employment Outcomes), 국제 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등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며 방법론을 대폭 개선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학과별 세부 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의 명성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이 장점일 수 있으나, 설문조사 기반의 평판 지표(Academic/Employer Reputation)비중이 매우 높아 너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논문 평가가 영어 논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영어권 대학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표 1] QS 세계대학순위 핵심지표 및 가중치

핵심지표	평가내용	가중치
Research and Discovery	Academic reputation	30%
	Citations per faculty	20%
Employability and Outcomes	Employer reputation	15%
	Employment outcomes	5%
Global Engagement	International faculty ratio	5%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5%
	International student ratio	5%
Learning Experience	Faculty student ratio	10%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5%

출처: QS Quacquarelli Symonds.(2025)

#### 2.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THE)

- 영국의 고등교육 전문 미디어 기관(민간 기관)으로써 교육 환경, 연구 실적, 논문 인용도 등 다섯 가지 주요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연구 중심 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총 13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순위를 산출하는데 QS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평가 기관 중 한 곳으로 손꼽히며, 교육 환경, 연구, 산학 협력 등 다각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평가를 시도한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피인용도(Citations)의 비중이 높아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대학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계 중심의 대학 등 연구 논문 편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없는 대학에서는 평가에 불리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표 2] THE 세계대학순위 핵심지표 및 가중치**

핵심지표	평가내용	가중치
Teaching	Teaching Reputation	15%
	Staff-to student ratio	4.5%
	Doctorate-to-bachelor's ratio	2%
	Doctorates-awarded-to-academic-staff ratio	5.5%
	Institutional income	2.5%
Research Environment	Research reputation	18%
	Research income	5.5%
	Research productivity	5.5%
Research Quality	Citation impact	15%
	Research strength	5%
	Research excellence	5%
	Research influence	5%
International Outlook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2.5%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aff	2.5%
	International collaboration	2.5%
Industry	Industry income	2%
	Patents	2%

출처: Times Higher Education.(2025)

### 3.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 중국 상하이교통대학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상하이대학순위 컨설팅에서 발표하는 공공 성격의 평가로서 일반적으로 상하이 랭킹으로 알려져 있으며, 객관적인 연구 성과와 학문적 성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순위 평가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배출 여부, 저명한 학술지 논문 게재 등 주관적인 측면의 지표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만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평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 설문조사나 주관적인 평판보다는 수상 실적 및 연구 논문 등 정량적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역사와 규모가 큰 연구 중심 대학, 특히 미국 대학이 강세를 보이는 대학평가라고 할 수 있음. 반면, 교육의 질, 학생 경험, 국제화 등 연구 외적인 요소는 거의 반영하지 않으며, 대학의 규모 보정(Correction for size)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대학이 작은 대학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함.

**[표 3] ARWU(상하이 순위) 핵심지표 및 가중치**

핵심지표	평가내용	가중치
Quality of Education	Alumni of an institution winning Nobel Prizes and Fields Medals	10%
Quality of Faculty	Staff of an institution winning Nobel Prizes and Fields Medals	20%
	Highly Cited Researchers	20%
Research Output	Papers published in Nature and Science	20%
	Papers indexed in Science Citation Index-Expanded and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Web of Science)	20%
Per Capita Performance	Per capita academic performance of an institution	10%

출처: ShanghaiRanking Consultancy.(2025)



#### 4.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y Rankings

- 미국에 본사를 둔 언론사(민간 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순위로서 미국 내 대학 순위평가(Best Colleges)로 유명하지만, Best Global University Rankings는 학술 연구 성과와 글로벌 및 지역 평판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13개의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90여 개국 약 2,000여 개 대학을 평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연구 성과 평가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객관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평가 대상 대학의 수가 넓어서 상대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고 있음. 그러나 순위자체가 미국의 언론 기관에서 시작된 만큼, 순위의 최상위권은 주로 미국 대학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음.

[표 4]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y Rankings 핵심지표 및 가중치

핵심지표	평가내용	가중치
Reputation Indicators	Global research reputation	12.5%
	Regional research reputation	12.5%
Bibliometric Indicators	Publications	10%
	Books	2.5%
	Conferences	2.5%
	Normalized citation impact(NCI)	10%
	Total citations	7.5%
	Number of publications that are among the 10% most cited	12.5%
	Percentage of total publications that are among the 10% most cited	10%
	International collaboration--relative to country	5%
Scientific Excellence Indicator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5%
	Number of highly cited papers that are among the top 1% most cited in their respective field	5%
	Percentage of total publications that are among the top 1% most highly cited papers	5%

출처: U.S. News & World Report.(2025)

### Ⅲ. 국내대학의 세계순위 변화 분석

#### QS 국내 대학 순위

[표 5]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국내 순위	2023년 (세계) 순위	2024년 (세계) 순위	2025년 (세계) 순위
1	서울대학교 (29)	서울대학교 (41)	서울대학교 (31)
2	KAIST (42)	KAIST (56)	KAIST (53)
3	POSTECH (71)	연세대학교 (76)	연세대학교 (56)
4	연세대학교 (73)	고려대학교 (79)	고려대학교 (67)
5	고려대학교 (74)	POSTECH (100)	POSTECH (98)
6	성균관대학교 (99)	성균관대학교 (145)	성균관대학교 (123)
7	한양대학교 (157)	한양대학교 (164)	한양대학교 (162)
8	UNIST (217)	UNIST (266)	UNIST (280)
9	경희대학교 (264)	DGIST (307)	DGIST (326)
10	GIST (288)	GIST (328)	경희대학교 (328)

출처: QS Quacquarelli Symonds.(각 연도)

- QS 세계대학순위에서 한국 주요 대학들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2024년 QS 순위에서 서울대, KAIST 등 대부분 국내 대학들의 순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2025년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순위를 회복하거나 상승하였음. 2023년 서울대(29위)가 국내 1위를 기록했고, KAIST(42위), POSTECH(71위), 연세대(73위), 고려대(74위)가 그 뒤를 이었으나, 2024년 서울대가 41위로 내려갔고, KAIST(56위)와 POSTECH(100위) 등 상위권 대부분 대학도 순위가 하락했음. 2025년에는 서울대가 31위로 재도약하여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세계 30위권에 가깝게 진입했고, KAIST(53위), 연세대(56위), 고려대(67위), 포항공대(98위) 등 상위 5개 대학 모두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음.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THE) 국내 대학 순위**

**[표 6]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국내 순위	2023년 (세계) 순위	2024년 (세계) 순위	2025년 (세계) 순위
1	서울대학교 (56)	서울대학교 (79)	서울대학교 (62)
2	연세대학교 (78)	연세대학교 (153)	KAIST (82)
3	KAIST (91)	성균관대학교 (169)	성균관대학교 (102)
4	성균관대학교 (174)	KAIST (170)	연세대학교 (102)
5	고려대학교 (201-250)	고려대학교 (202)	POSTECH (175)
6	POSTECH (251-300)	POSTECH (246)	UNIST (201-250)
7	UNIST (251-300)	UNIST (287)	세종대학교 (201-250)
8	경희대학교 (351-400)	한양대학교 (308)	한양대학교 (251-300)
9	한양대학교 (401-500)	세종대학교 (353)	경희대학교 (251-300)
10	GIST (401-500)	경희대학교 (392)	GIST (301-350)

출처: Times Higher Education.(각 연도)

- THE 세계대학순위에서는 서울대의 순위가 2023년 56위에서 2024년 79위로 하락했다가 2025년 62위로 다시 상승하였음. 2025년 THE 순위에서 국내 2위는 KAIST(82위)로, KAIST가 처음으로 연세대를 제치고 2위에 올랐고, 연세대는 2023년 78위에서 2024년 153위로 크게 하락했지만, 2025년에는 102위를 기록했음. 성균관대는 2024년 145위에서 2025년 102위로 급등하며 연세대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음. 그 외에 POSTECH(2023년 251-300위권 → 2025년 151위)과 고려대(201-250위권 → 189위)도 2025년에 순위가 상승하여, 2025년 THE 순위 Top200 내에 한국 대학은 총 6개 대학이 진입했음.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국내 대학 순위**

**[표 7]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ARWU) (상하이 순위)**

국내 순위	2023년 (세계) 순위	2024년 (세계) 순위	2025년 (세계) 순위
1	서울대학교 (94)	서울대학교 (86)	서울대학교 (81)
2	성균관대학교 (151-200)	성균관대학교 (151-200)	성균관대학교 (151-200)
3	고려대학교 (201-300)	KAIST (201-300)	연세대학교 (151-200)
4	연세대학교 (201-300)	UNIST (201-300)	한양대학교 (201-300)
5	한양대학교 (201-300)	고려대학교 (201-300)	KAIST (201-300)



국내 순위	2023년 (세계) 순위	2024년 (세계) 순위	2025년 (세계) 순위
6	KAIST (201-300)	연세대학교 (201-300)	고려대학교 (201-300)
7	UNIST (201-300)	한양대학교 (301-400)	경희대학교 (301-400)
8	POSTECH (301-400)	POSTECH (301-400)	POSTECH (301-400)
9	경희대학교 (401-500)	경희대학교 (401-500)	UNIST (301-400)
10	경북대학교 (401-500)	경북대학교 (401-500)	경북대학교 (401-500)

출처: ShanghaiRanking Consultancy.(각 연도)

- ARWU(상하이 순위)에서는 서울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세계 94위에서 2025년 81위로 올라 한국 대학 중 유일하게 Top100에 진입했고, 성균관대, 연세대, KAIST, 고려대 등이 151-300위권에 위치하여 2025년에는 연세대가 151-200위권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결과가 나타남. 전반적으로 ARWU는 노벨상 수상자나 최상위 피인용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보유 여부 같은 최정상급 연구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한국 대학들은 상위권 도약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실제 서울대조차도 80위권에 머물렀으며, 다른 주요 대학들은 연구의 규모와 질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 대학 대비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음.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 국내 대학 랭킹

[표 8]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

국내 순위	2023년 (세계순위)	2024년 (세계순위)	2025년 (세계순위)
1	서울대학교 (130)	서울대학교 (135)	서울대학교 (133)
2	성균관대학교 (263)	연세대학교 (205)	연세대학교 (180)
3	KAIST (282)	세종대학교 (241)	세종대학교 (241-247)
4	고려대학교 (290)	성균관대학교 (275)	성균관대학교 (271)
5	연세대학교 (306)	KAIST (296)	KAIST (281)
6	UNIST (365)	POSTECH (347)	고려대학교 (353)
7	세종대학교 (389)	고려대학교 (384)	UNIST (365)
8	POSTECH (403)	UNIST (387)	한양대학교 (393)
9	한양대학교 (427)	GIST (426)	GIST (406)
10	경희대학교 (481)	한양대학교 (434)	POSTECH (460)

출처: U.S.News & World Report.(각 연도)

- US News 세계대학순위에서는 서울대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속 세계 130위 안팎으로 한국 최고 순위를 지켰으며, 연세대가 2023년 306위에서 2025년 180위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세종대는 2021년 600위권에서 2024년 241위(국내 3위)까지 급상승하였음. 반면, POSTECH은 2024년 347위에서 2025년 460위로 순위가 떨어지는 등 일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지표별 반영 비중에 따라 순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US News 순위에서는 연세대, 세종대 등이 단기간에 순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 대학은 전반적으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및 고용성과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박사학위 소지 교원 비율이 높아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원 대비 학생 비율 등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국제화 관련 지표의 부진 및 연구 영향력 측면에서의 약세는 향후 대학 평가에서 국내 대학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학생 비율,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등 국제화 지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이 요구됨.

## IV.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 **연구 역량 및 영향력 강화:** 세계 대학순위상위권 도약을 위해 연구의 질과 양 모두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Normalized Citation Impact(NCI) 등 연구 성과의 질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지표를 높일 수 있는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력 향상을 위해 세계적 석학을 영입하거나 젊은 연구자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이 필요함. 또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면, 논문 피인용과 국제 평가점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함.
- **국제화 전략 강화:** 국제화는 여전히 국내 대학들이 취약한 부분이므로 과감한 국제화 전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학위 프로그램 확대, 해외 우수 유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이와 동시에 외국인 교수 초빙 요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함. 대학 내 다문화 환경 조성 및 행정 시스템 국제화를 체계성 있게 추진하여 캠퍼스의 글로벌 친화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평가지표(국제학생·교원 비율, 국제공동논문 비율 등)의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등의 노력은 단순 지표 개선뿐 아니라 대학의 전반적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 **평판 제고 및 브랜드 강화:** 세계 무대에서의 대학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우선 국제 학술 대회 개최,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강화, 해외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대학의 이름을 알리고 업적을 알리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 세계 대학평가의 평판도 설문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우수 연구와 교육 성과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도 필요하며, 일시적 순위 변화에 주목하기 보다는 일관된 비전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의 내실을 다지면서 성과를 축적해 나갈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국제적 위상과 평판이 상승하면서 랭킹도 높아질 수 있음.
- **지속가능성과 교육 혁신:** 최근 평가에 도입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표 등에 대비하여, 대학 운영과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 캠퍼스 구축, 사회공헌 활동, 포용적 교육정책 등 ESG 측면의 노력을 강화하면 QS 등의 신규 지표에서 점수를 얻는 동시에 대학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 향상과 졸업생 성취도를 높이면, 이것이 고용 측면의 평판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 V. 요약 및 결론

- QS 대학평가는 학계·고용주 평판 지표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 대학의 명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부터 지속가능성, 고용 성과, 국제 연구 네트워크 등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여 방법론을 개선하였음. 세계적 인지도와 학과별 세부 순위 제공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판 설문 비중이 높아 주관성이 크고 영어권 중심의 논문 평가로 비영어권 대학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THE 세계대학평가는 교육, 연구, 산업협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균형 잡힌 평가를 시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피인용도 비중으로 자연과학·공학 강세 대학에 유리하고 인문사회 특화 대학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ARWU(상하이 순위)은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배출 여부, 저명 학술지 논문 등 객관적 연구성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설문 등 주관적 평판 없이 정량적 지표만 활용하여 객관성이 높고 대형 연구중심 대학(특히 미국 대학)에 유리한 평가로 알려져 있으나, 교육의



질이나 국제화 요소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대학 규모 보정이 없어 규모가 큰 대학에 유리하다는 한계가 있음. U.S. News 세계대학평가는 연구 역량을 객관화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평가 대상 범위가 넓어 비교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기관이 주도하는 순위인 만큼 최상위권을 미국 대학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경향이 있음.

- 2025년 세계대학순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학들의 세계 순위는 평가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QS 세계대학 순위에서는 2024년에 한국 대학들의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2025년에는 대부분 상승함. THE 순위에서는 국내 6개교만이 Top 200에 진입하였고, ARWU(상하이 순위)에서는 서울대만이 세계 81위로 Top 100에 유일하게 포함되었음.
- 세계대학평가 지표에서는 연구의 질과 영향력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및 논문 피인용도 제고가 필요함. 아울러 국제화 부문에서 국내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므로, 영어 강의 프로그램 확대, 우수 외국인 유학생 및 교수 유치 등의 중·장기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캠퍼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판도 개선을 위해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 해외 홍보 및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최근 QS가 도입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대응하여 친환경 캠퍼스 조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쓸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의 내실을 다지면서 일관된 혁신 전략을 추진할 때, 국내 대학들의 순위와 글로벌 위상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참고 사이트

Clarivate. (2025). U.S. News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 Data and methodology overview.

<https://clarivate.com>.

Ellis, R. (2024, October 9).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results announced. Times Higher Education.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news/world-university-rankings-2025-resultsannounced>.

OECD. (2025).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

QS Quacquarelli Symonds. (2025).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https://www.topuniversities.com/world-university-rankings/2025>.

Quacquarelli Symonds.(2025).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Top global universities. TopUniversities. Retrieved from <https://www.topuniversities.com/world-university-rankings/2025>.

ShanghaiRanking Consultancy. (2025).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2025. ShanghaiRanking. Retrieved from <https://www.shanghairanking.com/rankings/arwu/2025>.

ShanghaiRanking Consultancy.(2025).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 2025: Methodology.

<https://www.shanghairanking.com/methodology/arwu/2025>.

Times Higher Education. (2025, October 1).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Methodology.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world-university-rankings-2025-methodology>

Times Higher Education. (2025, October 1).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2025/world-ranking>.

U.S. News & World Report. (2025).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

<https://www.usnews.com/education/best-global-universities>.